

제주도의 염전형성과 소금생산의 특성*

—종달마을과 구엄마을의 비교—

정광중(제주대 교수) · 강만익(세화고 교사)

1. 머리말

본고는 제주도의 염전형성과 소금생산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구좌읍 종달리와 애월읍 구엄리의 사례를 비교 검토한 것이다. 종달마을과 구엄마을을 비교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종달마을이 간석지(干潟地) 염전이라면, 구엄마을은 암반염전(돌염전)으로 제염장소의 대비성 때문이다. 그리고 소금생산 장소, 즉 제염지가 다르기 때문에 생산된 소금의 성격도 종달마을은 전오염(煎熬鹽)인 반면, 구엄마을은 천일염(天日鹽)으로 서로 다르다는 점이 부각된다. 다른 하나는 종달마을의 염전이 전오염과 천일염을 통틀어 제주도내에서 최대의 규모를 지닌 소금 생산지라면, 구엄마을의 염전은 암반염전 중에서 역시 최대의 규모를 보인다는 대비성이 배경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비교시점은, 궁극적으로 제주도의 염전형성과 소금생산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염전의 형성과정과 소금생산의 특성 비교를 목적으로, 먼저 제주도내의 염전 조성시기와 최초의 제염지역을 정리한 후에 동부지역의 염전형성과 도내의 확산과정, 종달마을과 구엄마을의 소금생산의 차이, 제주도 소금생산의 의미 순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 염전의 조성시기와 최초의 제염지역

과거와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의 인간생활에 있어서도 소금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정주 하는 곳에는 반드시 소금 생산지인 염전(鹽田)이 존재하거나 또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소금공급이 뒤따라야만 한다. 이런 사실을 전제할 때, 과연 화산섬인 제주도에서는 소금을 만들 수 있었을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제주도의 해안은 거의 대부분이 암석해안으로 이루어져 있고, 조석간만의 차도 그리 심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 본 연구물은 2005년 국립제주박물관이 주관한 '2005 박물관 교원연수(제주의 자연·고고·역사)'에서 사용한 원고(pp.8-20)를 토대로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함과 동시에 고지도와 사진자료를 첨가하여 재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저자들이 이전에 발표한 '제주도 염전의 성립과정과 소금 생산의 전개—종달·일과·구엄염전을 중심으로—'(『탐라문화』, 제18호, 1997, pp.351-379, 2인 공동연구)와 '제주도 구엄마을의 돌소금 생산구조와 특성—과거의 지리적 현상에 대한 미시적 접근—'(『지리학연구』, 제32집 제2호, 1998, pp.87-104, 정광중 단독연구)에 근간을 두고 있음을 덧붙인다.

제주도의 자연조건은 소금생산을 불가능하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과연 도서지역인 제주도(濟州島)에서는 소금생산을 위한 염전조성이 가능했을까. 가능했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었을까. 이와 관련되는 역사적 증거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고 아주 단편적인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상황이다. 먼저, 이원진의 『탐라지(耽羅誌)』(1653) 토산조(土産條)에는 “바닷가는 모두 암초와 여울이어서, 소금기가 있는 땅이 매우 적다. 그리고 이 지방에는 무쇠(水鐵)가 나지 않아 가마솥이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소금이 귀하다”고 적고 있다. 이점은 제주도 해안이 암석해안으로 간석지(干潟地)가 발달하지 않아서 소금생산을 위한 자연적 조건이 마땅치 않다는 배경과 함께 전오염(煎熬鹽) 제조에 필수적인 염부(鹽釜)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1520)과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중 『선조실록(宣祖實錄)』(1571)에서도 “……동해와 같이 해염(海鹽)을 얻고자 하나 물이 싱거워서……”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 사실은 결국 해수의 염분농도가 낮은 관계로 소금생산이 매우 힘들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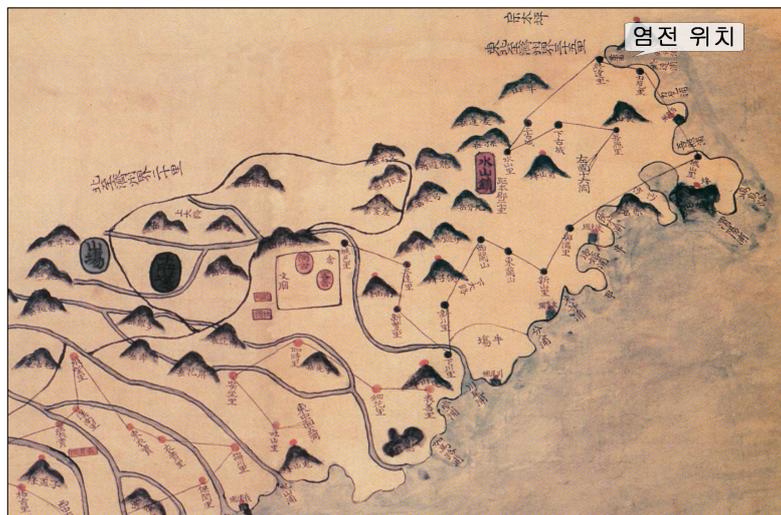
이상과 같은 단편적인 기록만으로는 제주도에 소금을 생산했다는 사실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 제주도의 염전조성은 해안지역에 촌락이 형성된 이후 해안지역이 개척되는 과정에서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다음의 여러 문헌기록을 통해서 볼 때 그 성립 시기는 대략 16C 이후로 추정된다. 먼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1)의 제주목(濟州牧) 토산조에는 소금이 토산물로 기재되어 있으며, 김정(金淨)의 『제주풍토록』에는 “가장 우스운 것은 이 땅이 큰 바다로 둘러 싸였으나 소금이 나지 않는 일이다(서해와 같이 전염(田鹽)을 얻고자 하여 물을 떠다가 갈아도 소금이 없고, 동해와 같이 해염을 얻고자 하나 물이 싱거워서 공은 백배 드나 얻는 바는 적다). 그러므로 반드시 진도(珍島)나 해남(海南) 등지에서 사들이는 까닭에 민간에는 극히 귀하다”와 같이 소금생산이 어려웠던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김상헌의 『남사록(南槎錄)』(1602) 에는 앞서 제시한 김정(金淨)의 『제주풍토록』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일찍이 충암록(沖庵錄)을 보니……, 서해와 같이 전염을 얻고자 하여 물을 떠다가 졸여도 소금을 만들지 못하여……, 강려(姜侶) 제주목사(1573년 6월~1573년 10월)는 해변의 노지(鹵地)를 보고, 도민들에게 반도부 해안지방의 해염 생산법을 가르쳐 소금을 만들게 하였으며, 부족분은 남해안의 진도와 해남 등지에서 구입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남환박물(南宦博物)』(1702)에도 이형상 제주목사가 반도부에서 들여온 “철 4,000여 근을 사다가 가마(鐵釜) 세 개를 주조하여 제주에 두 가마, 대정에 한 가마를 민간에게 내주었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육지로부터 염한(鹽漢 : 소금 굽는 사람)을 불러다가 한 달 동안 학습시켰다. 한 가마를 구우니 많게는 60여 두(斗)까지 생산하였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록으로 보아, 제주도에서는 대략 16C~18C 사이에 걸쳐 초보적인 단계의 제염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예시한 문헌들 중에서도, 염전이라는 명칭이 나오는 고문헌은 『남사록』과 『남환박물』이다. 『남사록』의 내용을 좀 더 상세히 검토해 보면, “自別防至旌義 其間有鹽田數處…環海七處有鹽盆…”이라 하여, 별방(현재의 구좌읍 하도리 일대)에서 정의(현)까지의 해안에 염전이 여러 곳에 존재하였으며, 또한 해안을 따라 염분(鹽盆: 소금제조용 가마)이 일곱 군데 있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문헌이 집필될 당시에는 이미 본도에서도 제염 활동이 시작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별방과 정의라는 지명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은 염전형성의 장소를 유추하는데 큰 단서를 제공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즉 별방과 정의는 현재의 구좌읍, 성산읍, 남원읍 일대가 되기 때문에, 결국 본도에서 성립된 최초의 염

전지대는 동부지역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환박물』에서도 “旌義有鹽田一處 所煮甚些”라 기록하고 있어서, 정의현에 염전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새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한편 염전이 형성된 지역은 고문헌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동부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더욱 구체적인 마을단위의 지명은 언급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전술한 고문헌이나 그 이후의 사료에 기초하면, 도내 최초의 염전은 종달마을의 해안부근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고지도를 통해서도 간접적인 유추가 가능하다. 즉, 고종 9년경(1872년)에 편찬된 『정의군읍지(旌義郡邑誌)』 내의 정의군지도(旌義郡地圖)를 보면, 오직 종달마을의 해안부근에만 ‘鹽田’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며(그림 1), 같은 시기의 대정군지도(大靜郡地圖)에는 ‘鹽田’이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다.



<그림 1> 정의군지도 내 염전 표시가 된 구좌읍 종달리 해안

또한 고종 연간(1863~1907)의 『정의읍고지(旌義邑古誌)』에 삽입된 정의지도(旌義地圖)에도 종달마을의 해안과 보한마을(현, 남원읍 태흥리) 포구에 ‘鹽田’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기록들은 종달마을에 최초로 염전이 성립되었을 가능성을 대변해주고 있다. 나아가 본도로의 제염법 전수는 반도부에서 건너온 염한(鹽漢)이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사실은 만성적으로 소금이 부족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官)이 직접 공염(公鹽) 생산에 참여했던 염한들을 불러들여 제염법을 전수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음을 여러 단편적인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동부지역의 염전형성과 도내의 염전 확산

16C~18C에 성립된 제주도의 염전은 조선시대 후기~일제강점기 초기에 걸쳐 지역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배경은 조선시대 후기에 몇 개에 불과하던 염전수가 1910년 조선총독부농상공부(朝鮮總督府農商工部)가 발행한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第三輯))』

에는 23개소로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에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수산지(제3집)』의 통계에서 나타나는 소금 생산량을 전제로 하면, 제주도내의 염전의 규모는 종달, 시흥, 두모, 구업, 동일과, 귀덕마을 등을 제외하면 극히 소규모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염전이 지역적으로 확산된 배경은 당시의 지리적인 여건을 토대로 할 때,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로, 본도가 섬이라는 격절성과 더불어 도내의 교통수단이 불편했던 사정으로 인하여 염전이 확대되기 이전까지는 고도의 자급적 내지는 절약적인 생활방식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배경은 단지 소금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로, 농업생산의 확대와 인구의 점진적 증가라는 사회적·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과거에 비해 1인당 소금 소비량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셋째로는 해안지역을 관통하는 신작로가 1915년을 전후하여 개설됨에 따라 주거지의 공간적 확산은 물론이고 어업적 기능이 강화된 마을들이 다수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도내의 많은 포구마을에서는 중산간 지역의 마을까지 어패류(魚貝類)를 판매하기 위하여 염장(鹽藏)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포구마을을 중심으로 소규모 염전이 확산되었다는 사실은 간존하는 여러 지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조천읍 신흥리의 염전동(鹽田洞)과 염전보(鹽田堡)를 시작으로 조천읍 신흥리·애월읍 애월리·서귀포시 강정동의 소금밭, 성산읍 오조리·안덕면 화순리의 소금막, 애월읍 하귀1리·서귀포시 대포동의 소금빌레, 서귀포시 보목동의 소금통, 서귀포시 하효동의 소금막(鹽幕)과 소금코지 등은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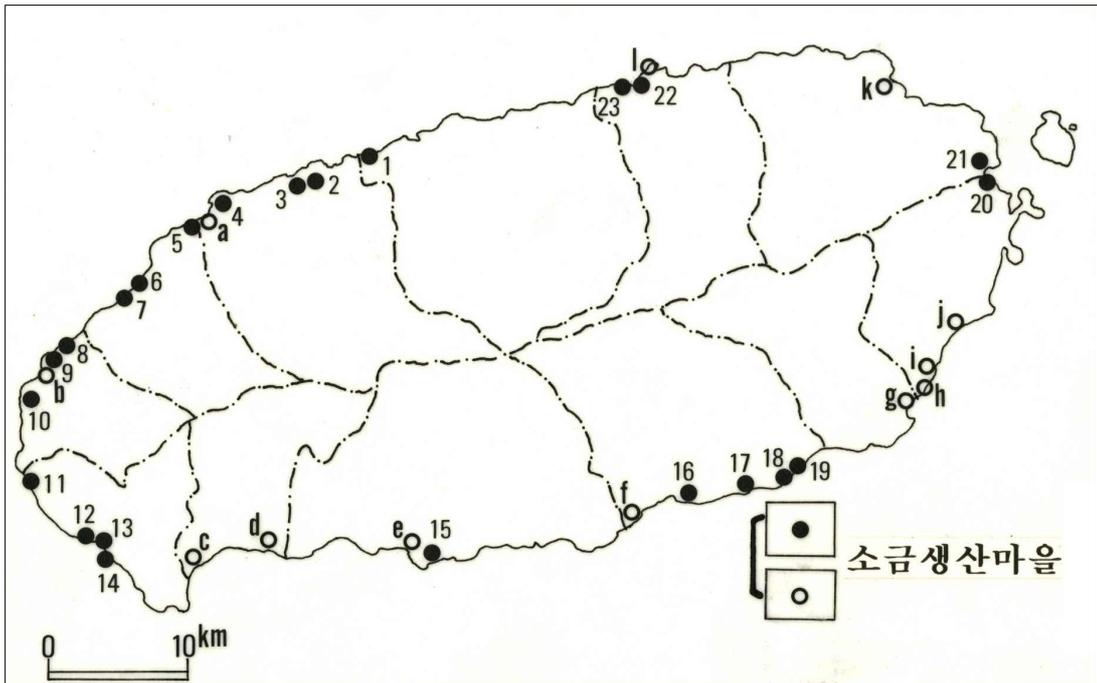
<그림 2>는 1910년을 전후한 시기의 본도 염전에 대한 지역적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앞서 정리한 것처럼, 『한국수산지』에 기술된 23개 염전을 기본으로 하여 기타 마을지 등의 자료에 기술된 12개의 염전을 합하면, 도내에는 대소 35개의 염전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다른 자료에 기록돼 있거나 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하면, 여기의 염전수보다도 훨씬 많은 수를 찾아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단, 본고에서는 마을지 등에 기록된 12개의 염전의 경우는 소금생산 규모가 극히 미미했던 것으로 판단하여 『한국수산지』에 기록된 23개의 염전만을 대상으로 지역적인 분포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한국수산지』에 기술된 23개 염전을 당시의 행정구역별로 검토해 보면, 제주군(濟州郡)에 56%인 13개의 염전이 분포하고 있었고, 대정군(大靜郡)과 정의군(旌義郡)에 각각 22%인 5개의 염전이 입지하여 염전분포의 남북차를 보이고 있었다. 이처럼 염전분포의 지역차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염전조성이 가능한 해안지형의 존재여부와 관련된다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지역 간 배후 인구규모나 농어업 활동의 차이에서도 정도의 차는 있다하더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오래전부터 제주도의 행정·경제의 중심지인 제주군 지역에 대소의 염전들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도내의 해안지역에 입지한 여러 포구마을에서는 생업활동에 필수적인 소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할 만한 상황 하에 직면해 있었음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염전조성이 가능한 포구마을을 중심으로 소규모이긴 하나, 지역적으로 확산돼 갔으며 염전조성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소금장수(鹽商)로부터 직접 구입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은 소금의 생산면적과 생산량을 지역별로 살펴보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그러나 1910년경의 자료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를 통틀어서 정확한 소금생산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염전별로 다소의 증감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대략 본 그림에서 제시한 생산면적과 생산량은 당시의 도내 염전에 대한 규모를 판단하는데 하나의 기준이 될 것으로 사려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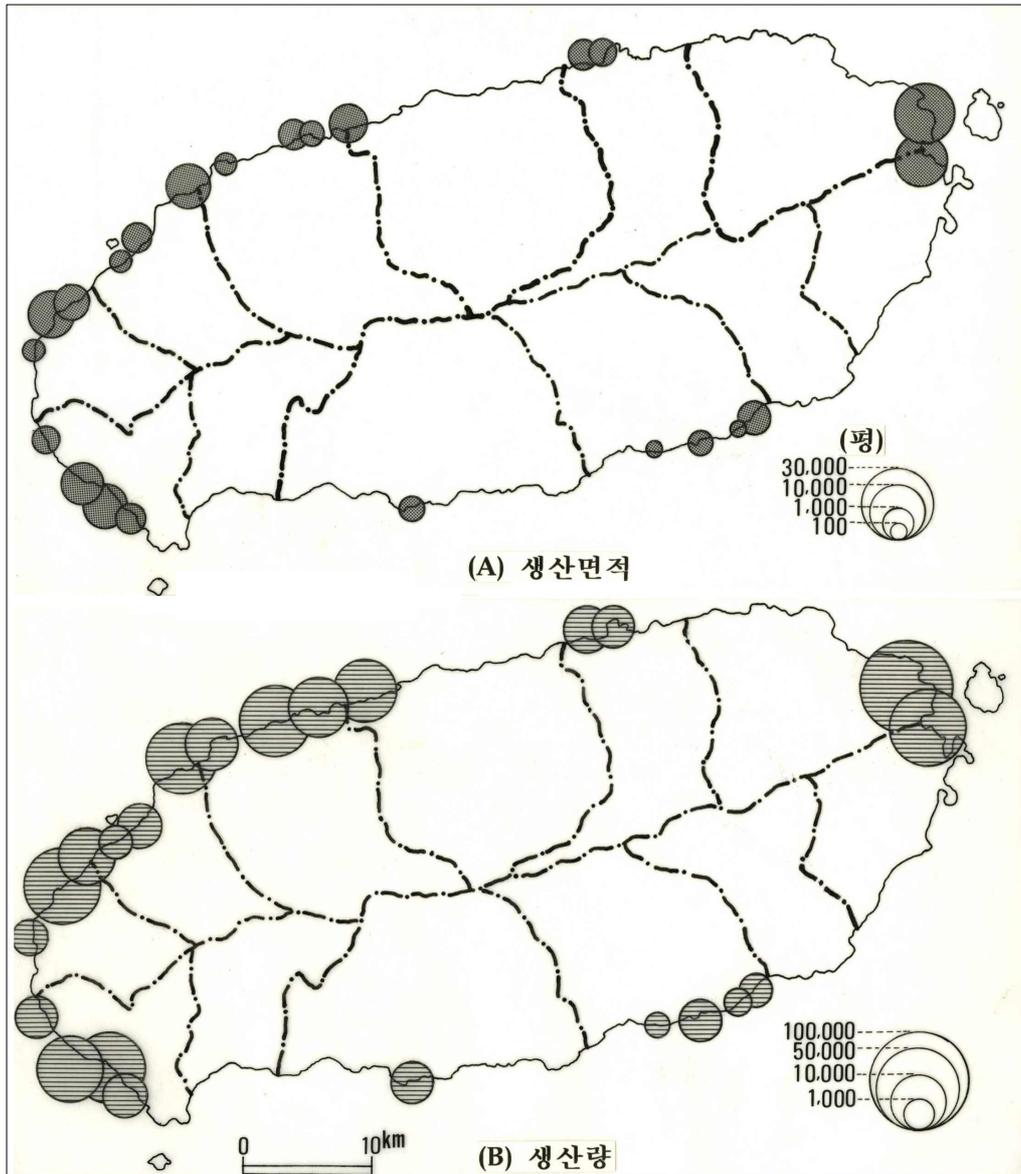


<그림 2> 일제강점기 제주도내의 염전분포

- 【염전명】 1. 외도 2. 하귀 3. 구업 4. 애월 5. 귀덕 6. 웅포 7. 협재 8. 금등 9. 두모 10. 용수 11. 도원 12. 서일과 13. 동일과 14. 모슬포 15. 강정 16. 동미 17. 서의 18. 서보한 19. 보한 20. 시흥 21. 종달 22. 조천 23. 신촌(이상, 『韓國水産誌』(1910) 기재 마을)
 a. 금성 b. 신창 c. 사계 d. 화순 e. 월평 f. 하례 g. 하천 h. 신천 i. 신평 j. 신산
 k. 한동 l. 신흥(이상, 기타 자료 기재 마을)

<그림 3>에 따르면, 소금생산은 제주군이 대정군이나 정의군보다 훨씬 우위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것은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상대적으로 염전을 조성할 수 있는 적지(適地)가 많고 관할범위가 넓으며, 또한 배후의 소비인구가 많았다는 점과 관련된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 당시의 염전면적과 생산량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먼저 염전면적을 보면, 제주도의 염전 총면적인 53,059평 중 제주군이 33,113평으로 62.4%를 차지하며, 대정군 및 정의군은 19,946평으로 37.6%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보면, 제주군내에서도 염전면적의 지역차가 나타난다. 13개의 염전 중 종달(14,357평), 두모(5,560평), 귀덕(4,403평)이 비교적 넓은 면적을 보이고 있다. 대정군에서는 동일과(4,428평), 그리고 정의군에서는 시흥(8,178평)이 규모면에서는 가장 큰 염전이었다. 개별염전에서는 종달염전이 14,357평으로 가장 크며, 이어서 시흥과 일과염전이 각각 8,178평과 7,846평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특히 종달염전과 시흥염전은 해안에 넓게 발달한 사빈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도 제염면적이 넓게 나타나고 있다.

이어서 생산량에서는 총 354,326근(약 213톤) 중 제주군이 244,847근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하며 대정군(26,750근)과 정의군(40,979근)을 합한 양보다도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개별염전에서는 생산면적과 동일하게 제주군에서는 종달염전(89,052근)이 최대의 생산량을 보였고, 대정군에서는 동일과염전(26,750근)이, 그리고 정의군에서는 시흥염전(40,979근)이 최대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도내의 여러 염전 중에서는 제주군 동부지역에 위치한 종달마을이 생산면적과 생산량에서 최대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1910년경 제주지역의 염전별 생산면적(A)과 생산량(B)

(자료 : 朝鮮總督府農商工部, 1910(明治 43), 『韓國水産誌』(第3輯), pp.432-434에 의해 작성)

4. 종달마을과 구엄마을의 소금생산의 차이

1) 종달마을의 소금생산 과정과 특징

종달마을은 제주도 제염의 효시인 동시에 소금생산의 주산지였음을 검토하였다. 종달마을은 지형적 특성상 만입부에 넓은 사빈(砂濱)의 발달로 염전조성이 유리하고, 또한 근처에는 지미봉, 두산봉 등 오름과 야산이 해안 가까이에 인접해 있으므로 쉽게 연료를 구할 수 있었다(그림 4, 그림 5). 그리고 근거리에는 본도의 동부지역 어장의 중심지인 성산포가 위치하

고 있다는 사실은 주산지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더욱 확고히 해준 셈이었다.

『한국수산지(제3집)』에 의하면 “종달리는 이름 있는 제염지로 인가 353호 중에서 제염에 종사하는 자가 약 160명에 달하며 가마솥은 46개가 있었다”고 한다. 이 사실에서도 일제강점기 초에는 이미 제염이 활발히 행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달마을에서의 소금 생산은 크게 3단계의 과정을 걸쳐 행해졌다. 즉 염전조성단계, 채함(採鹹)단계 및 전오(煎熬)단계이다. 채함과정은 염전에서 소금의 원료가 되는 함수를 채취하는 단계로서 지형이나 조상대 및 기후조건이 유리해야 하며, 최종단계인 전오과정은 염분이 부착된 모래로부터 해수를 부가하여 소금알갱이를 얻는 과정으로서, 많은 연료(빨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수급관계가 큰 영향을 주었다.



<그림 4> 포켓 형태의 만입부를 지닌 종달 마을 해안과 염전터(마을 앞 부분)
(자료 : 2003년 9월, 지미봉 정상에서 촬영)



<그림 5> 소금모래 조달에 적당한 종달리 사질해안
(자료 : 2005년 6월 촬영)

종달마을의 염전은 마을의 동남쪽 해안가의 사빈지구에 조성되었다(그림 4). <표 1>을 참고하면, 마을 내에서는 동별로 사빈의 일정장소를 선택하여 간조(干潮)시 염전에 모래를 산태로 운반한 후 나무 삼으로 골고루 뿌린다. 그리고 나서 ‘물골’을 따라 들어온 해수를 ‘물지게’로 운반하여 모래 위에 수십 차례 투입시킨다. 이 과정은 염분의 농도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다.

태양열에 의하여 해수에 포함된 수분이 증발하게 되면 모래에 염분이 부착된다. 염분이 누적된 ‘소금모래’(鹹砂)는 서로 엉겨 붙기 쉬우므로, ‘서래’를 이용해 염전을 십자(十字)형태로 갈며 모래 덩어리를 풀어준다. 이 작업이 끝나면, 염전에 다시 해수투입을 3일 정도 반복하여 더욱 농도 짙은 소금모래를 만든 후 보관 장소인 ‘모살눌터’로 운반한다. 이후, 청정일에 소금모래를 염전 한구석에 설치된 ‘서슬’에다 넣고 해수를 다시 투입하면서 소금모래로부터 함수를 분리해낸다. 이 과정에서 함수의 염도(鹽度)는 곧바로 소금의 양과 직결된다.

다음 단계에서는 나무 막대기와 송진 덩어리로 만든 ‘물자으리’로 함수의 염도를 측정한다. ‘곤물통(함수통)’을 이용하여 ‘가망집(釜屋)’으로 운반한다. 곤물통은 함수를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이다. 제염의 마지막 단계인 전오작업은 함수를 가망집에 설치한 ‘가마(鐵釜)’에 부어 넣는 일부터 시작된다. 가마솥에 ‘모듬물’을 부은 다음 ‘곤물(함수)’을 3~4회 투입해 가며 하루 종일 가열하여 소금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소금에 묻은 수분(鹽汁)을 제거하기 위해 ‘중땡이’ 위에 대나무로 만든 ‘구덕’을 얹히고 소금을 나무 삼으로 떠 담는다.

이때 중탕이 안에 수분이 떨어지는 데 이것을 '춘물'이라 하였다. 춘물은 고염분의 물이므로 소금대용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완성된 소금은 대구덕에 담아 습기가 없는 부엌아궁이 뒤의 재[灰]위나 건조한 창고에 보관하였다. 종달마을에서는 물때로 보아 조수가 가장 적게 들어오는 조금 때부터 본격적으로 제염을 시작하여, 여덟 물까지 약 7일 동안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한 달에 두 차례 정도 생산이 행해졌다.

<표 1> 종달마을의 제염과정

염전조성	채 합 과 정		전오과정	소금완성
① 모래 모으기	② 해수를 뿌리며 소금모래 만들기 ③ 서래로 소금모래 갈아주기 ④ 해수투입 반복하기 ⑤ 소금모래를 모살 놀터에 운반하기	⑥ 소금모래를 서슬에 옮기기 ⑦ 서슬 위로 해수를 재투입하며 함수 만들기 ⑧ 물자오리로 함수의 염도 측정하기	⑨ 가마터로 함수 운반하기 ⑩ 가마솥에서 함수를 가열하기 ⑪ 중탕이에서 소금에 남은 수분 제거하기	⑫ 창고나 불치통에 담아보관하기

(자료 : 현지조사 및 『종달리지』(1987, pp.70-71)에 의거하여 작성)

소금의 생산시기는 겨울과 장마철을 제외한 기간 즉 3~4월과 7~8월 및 9~10월이며, 5~6월과 11~2월에 주로 판매가 이루어졌다. 제염에 필요한 노동력은 생산활동과 판매활동으로 구분하여 투입되었는데 특히 염전조성, 해수운반, 연료채취 및 운반, 전오 과정에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였다. 가마의 구입이나 사용에 있어서는 10~15명 단위로 접(接)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있었다.

2) 구염마을의 소금생산 과정과 특징

종달마을이 해안에 퇴적된 모래를 활용하여 소금을 생산했던 반면에, 구염마을에서는 암석해안의 암반(岩盤)을 활용하여 해수를 직접 증발시키는 제염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해안에 발달된 약 800~900여 평 정도의 파식대(波蝕臺)가 바로 염전장소였는데, 이처럼 구염마을의 경우는 암석해안이라는 배경 때문에 태양열이라는 천연에너지를 이용하여 함수를 증발시키고 제염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 결과 '돌소금'이라 일컬어지는 특유한 소금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1910년경 구염마을의 제염면적은 887평으로 나타나듯이, 도내 23개의 염전 중에서는 중간정도(11위)의 규모라 할 수 있다. 소금 생산량은 28,800근으로 전체 4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좁은 제염공간에 비해서는 비교적 생산량은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제염장소가 조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던 관계로, 기상조건이 양호하다면 반복해서 제염이 가능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염마을의 제염장소인 암반, 즉 파식대는 동북~서남방향으로 약 500m, 폭이 50m 내외이다(그림 6). 그러나 파식대의 전 구간에서 제염이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암석의 경연(硬軟)에 의한 차별침식을 보이고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제염에 부적당한 곳도 존재했다(그림 7). 그리고 소금을 만드는 암반은 공동소유가 아닌 개인소유로서, 이들은 집안 대대로 상속되어 왔으며 1가구가 소유하는 면적은 대략 20~30평 남짓이었다. 개인소유를 나타내는 경

계선은 암반에 그어져 있는 절리선(節理線)으로 결정되는데, 이 방법은 경험에 의한 약식구분이라 할 수 있다.

구엄마을은 <표 2>에서 보듯이 염전조성과정의 극히 단순하면서도 초보적이다. 조성과정에서는 특별히 많은 노동력이나 특수한 시설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해수를 가두어 놓기 위한 암반내의 독막기(소제방 쌓기)가 중요한 작업 중의 하나이다. 작업순서는 다음과 같다. 염전으로 이용할 암반은 먼저 대빛자루로 깨끗하게 쓴 다음, 누수방지를 위해 암반바닥에 나 있는 구멍을 진흙(泥土)으로 막는다.



<그림 6> 구엄마을의 염전터(속칭 빌레뜨르)
(자료 : 2011년 11월 촬영)



<그림 7> 염전터 주변의 제염 부적지
(자료 : 2011년 11월 촬영)

암반바닥의 구멍 막기와 함께, 여러 번 다져서 만든 진흙으로 암반 위에 독(小堤防)을 만든다. 독막기는 암반에 나있는 선을 따라서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10cm 정도의 높이로 쌓는다(그림 8). 독막기에 이용되는 진흙은 구엄마을에 인접해 있는 가문동, 반대동 및 하동 사이의 논이나 또는 수산봉(水山峰, 121m)으로부터 채취해온다.

독막기 작업의 종료는 결국 증발지의 완성을 의미한다. 이 증발지를 현지에서는 ‘호갱이’라 불려진다. 여러 개의 증발지 중에서 1~2개는 제염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용되는 ‘소금돌’이 되는데, 가장 매끈한 암반으로 선택한다. 소금을 생산하려면, 먼저 호갱이 안에 해수를 채워야 하므로, 우선 바다와 가까운 증발지부터 순서대로 채우게 된다. 이처럼 구엄마을의 경우는 제염장소가 해수면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허벅이나 양동이를 이용하여 해수를 퍼 올리는 노력이 필요했다.

소금생산의 원료인 함수는 호갱이에서 3단계의 과정을 걸친다. 첫 번째는 모든 증발지에 해수를 떠 넣어 저 농도의 함수를 만든다. 두 번째는, 저 농도의 함수를 몇 개의 증발지로 모아 계속적으로 농도를 높여간다. 이때 6~10개의 증발지의 함수는 4~8개의 분량이 되며, 비어 있는 증발지에는 다시 새로운 해수를 부어 놓는다. 한번 이동된 함수는 점차 농도가 증가하여 중농도의 함수가 된다. 세 번째로는 중농도의 함수를 다시 2~4개의 증발지의 양으로 합치고 계속 증발시킨다. 이렇게 3단계를 걸친 함수는 고농도의 함수상태가 된다. 그 후, 계란을 띄워 최종적인 농도확인을 하고 좁박(솔박)과 바케츠(양동이)에 담아 함수보관용기인 ‘혹(물혹)’으로 운반하여 1~2일간 재운다. ‘혹’은 진흙으로 만든 일종의 용기이며, 외

부의 형태는 직사각형 모습을 취하고 있다. 함수는 일조량이 많은 날에 혹에서 꺼내어 소금 돌(매끈한 암반)에 얹히고, 태양열로 증발시킨 후 최종적으로 소금 결정체를 얻는다(그림 9). 이 단계에서는 고농도의 함수를 소금돌의 크기에 알맞게 산정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상조건이 좋으면 계속적으로 함수 만들기가 이루어지며, 고농도의 함수가 적당량이 되면 돌소금 완성을 위한 함수의 소금돌 얹히기 작업도 병행된다.

<표 2> 구염염전의 제염과정

염 전 조 성	채 함 과 정	소 금 완 성
① 암반 청소하기 ② 암반의 틈새 막기 ③ 진흙으로 독쌓기 (‘호갱이’ 완성)	④ 해수를 호갱이에 운반하기 ⑤ 호갱이에서 함수 만들기 (3단계의 함수 완성) ⑥ 함수의 농도 확인하기 ⑦ 함수를 ‘혹(물혹)’에 보관하기	⑧ 고농도의 함수를 증발시키기 ⑨ 돌소금 완성

(자료 : 현지 청취조사(1996년 11~12월)에 의거하여 작성)



<그림 8> 소금을 얻기 위한 독과 호갱이
(자료 : 2011년 8월 촬영)



<그림 9> 최종적으로 소금을 얻는 과정
(자료 : 2011년 8월 촬영)

3) 종달마을과 구염마을의 소금생산의 차이

종달마을과 구염마을의 소금생산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제염장소의 차이에 있음을 살펴본 것이다. 한 번 더 명확하게 지적하자면, 동일한 제주도내의 해안지역이지만 종달마을의 제염장소는 모래가 퇴적된 사빈지구(砂濱地區)이고, 반대로 구염마을의 제염장소는 파식대가 발달한 암반지구(岩盤地區)라는 사실이다. 이는 제주도의 해안에서 대비적으로 나타나는 해안지형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종달마을은 사질해안의 간석지를 활용한 제염방법인 반면, 구염마을은 암석해안의 말단부에 발달하는 파식대를 활용한 제염방법인 것이다.

이처럼 제염장소의 차이는 소금생산의 중간과정의 차이는 물론이고 제염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생산도구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종달마을에서는 전오염(煎熬鹽), 그리고 구염마을에서는 천일염(天日鹽)이라는 성격이 다른 소금 결정체의 구분을 낳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오염을 생산하는 종달마을에서는 염전조성의 단계와 채합단계에 이어 마지막 단계인 전오과정을 걸치지만, 흔히 ‘돌소금’이라 불리는 천일염을 생산하던 구엄마을에서는 전오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많은 연료(빨감)와 그에 따른 노동력은 필요 없었다. 상대적으로 종달마을에서는 전오과정에서 소금 결정체를 얻기 위해 대형 가마솥과 주변 오름이나 야산에서 얻는 많은 양의 연료가 반드시 필요하였다. 소금생산에 사용되는 중요한 도구로서는 종달마을이 서래, 서슬, 중맹이, 가마솥(가마덕) 등이 필요했다면, 구엄마을에서는 흑(또는 ‘물흑’: 함수 보관함), 바케츠(양동이), 줍팍(술박), 대나무 빗자루 등이 필요했다.

5. 마무리 : 제주도내 소금생산의 의미

종달마을과 구엄마을을 사례로 하여, 제주도 염전의 형성과정과 확산과정 그리고 두 사례마을의 생산 구조적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끝으로, 여기서는 두 마을의 사례를 통해서 본 제주도의 소금생산에 대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 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과거 제주도 소금생산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로, 제주도의 소금생산은 육지부의 소금생산과 비교하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된 배경을 지니고 있다. 말하자면, 제주도의 경우는 육지부 쪽에서 들어오는 절대적인 공급량의 부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제염을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육지부와 비교하면 자연적인 조건이나 사회적·경제적인 생산조건이 절대적으로 불리했다는 사실이 여러 고문헌과 고지도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지적하는 불리한 생산조건이란 조석간만의 차가 적고 간석지가 거의 없다는 자연적 조건과 철(무쇠)이 나지 않아 소금을 구울 수 있는 가마솥 제작이 어려웠다는 사회적·경제적 조건으로 요약된다.

둘째로, 두 마을의 소금생산 사례를 비교해 볼 때, 각 마을이 처해있는 자연적 조건과 사회적·경제적 조건은 다르지만, 마을사람들은 서로 다른 환경을 매우 유용하게 활용했으며, 그러한 결과로 인하여 두 마을의 소금생산구조는 완전히 대비되는 양상을 띠게 됐다는 사실이다. 종달마을은 지형적으로 만입된 해안지구에 모래의 퇴적이 이루어져 있어 그나마 전오염을 생산할 수 있었던데 반해, 구엄마을은 용암암반인 파식대의 일부지구를 이용하여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소금생산형태는 제주도내의 다른 마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제염형태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셋째로, 제주도에서는 조선시대 후기인 16~18C 사이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소금을 생산하기 시작했지만, 일제 강점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육지부로부터의 소금 공급량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소금생산은 지속돼 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전제로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은, 제주도민들은 열악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항상 스스로 개척하고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사고(思考)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점은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현대를 살아가는 현 세대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교육적 이념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종달마을을 사례로 할 때 제주도 소금생산의 역사는 길게는 450여 년, 짧게는 2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소금생산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과 더불어 제

염이 행해지던 장소(현장)는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육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제주도를 먼저 살다간 선인들의 생활문화에 대한 학습 자료로서 소금생산의 장소는 값지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로 접어들면서, 제주도에서는 선인들의 생활문화의 역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과거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삶을 추구해 온 배경이 없지 않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분석하여 선인들의 삶을 재조명함과 동시에, 그러한 삶의 현장으로서 장소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작업을 시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들 스스로가 미래사회를 내다볼 수 있는 혜안(慧眼)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고광민, 1994, 「생업문화유산」, 『제주의 문화유산』, 한국이동통신 제주지사.
- _____, 1997, 「제주도 소금밭」, 『제주도』, 통권100호, 제주도.
- 金奉玉 編譯, 1986, 『朝鮮王朝實錄中 耽羅錄』, 濟州文化放送.
- 金 淨, 1520, 『濟州風土錄』(『耽羅文獻集』, 1976, 제주도교육위원회).
- 金尙憲, 1602, 『南槎錄』(金禧東 譯, 1992, 永嘉文化社).
- 金允植, 『續陰晴史』, 卷10(上)(金益洙 譯, 1996, 濟州島文化院).
- 李元鎭, 1653, 『耽羅誌』(『耽羅文化叢書(9)』, 1991, 耽羅文化研究所).
- 李衡祥, 1704, 『南宦博物』(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79, 『耽羅巡曆圖·南宦博物』).
- 李 苻 外, 1530, 『新增東國輿地勝覽』(民族文化推進會 編, 1970, 『新增東國輿地勝覽』, 第38卷, 濟州牧 土産條).
- 朝鮮總督府農商工部, 1910, 『韓國水産誌』(第3輯).
- 龜井千歩子, 1979, 『塩の民俗學』, 東京書籍株式會社.
- 『旌義郡邑誌』, <旌義郡地圖>, 1872(고종9년), 서울대 규장각 소장.
- 『大靜郡邑誌』, <大靜郡地圖>, 1872(고종9년), 서울대 규장각 소장.